

경기지역



소요산단풍문화제

윤해로 23회를 맞이하는 '소요산 단풍문화제'가 10월 25일부터 26일 2일간 경기도 동두천시 신시가지 차 없는 거리와 시민회관 공연장, 전시장, 소요산 등지에서 열린다. 이 문화제의 특징은 동두천 시민이 직접 단풍나무를 심어 10년 이상 된 단풍나무 터널길로 하여금 붉은 단풍사이를 걷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1년 동안 준비한 각종 전시회, 전통공연, 체험행사, 무대예술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동두천시 전역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전남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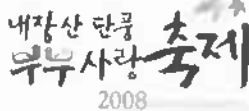
대한민국향대전

국화향기에 취하고 가을나비에 흠뻑 빠져들어 명품 축제로 자리매

김하고 있는 '대한민국향대전'이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26일간 함평군 자연생태공원에서 열린다.

주요행사로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잠자리, 메뚜기, 여치 등 살아있는 곤충과 다양한 국화작품 전시와 고향의 향수를 물씬 풍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고구마, 콩 등 토속적인 가을 먹거리를 직접 구워먹고 어린이들은 수수깡을 이용하여 안경, 바람개비, 곤충 등을 만드는 공작물 만들기 체험장도 마련된다.

전북지역



2008 내장산단풍부부사랑축제

천혜의 단풍명소로 유명한 내장산에서 '2008 내장산단풍부부사랑 축제'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내장산 제4주차장 외 정음

사내 일원에서 열린다.

공식행사로 시민의 날 기념식, 개막식, 채수의례 및 봉송, 정음사여인재제가 있으며, 공연행사로 정음사부부사랑가요제, MBC 가요베스트, 난타, 비보이, 국악공연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 단풍체험, 샘골 맛(味)뻗(美)향(香) 체험, 정음사 전국국악경연대회, 정음사 전국 남/여 시조경창대회, 정음특산물장터, 사랑의 소원등 달기 등의 주요행사가 들어 있다.

고창국화축제

제4회 고창국화축제

'국화 옆에서' 시인 서정주의 고향 고창에서 세계최대 규모 30만평 300억 송이 국화의 향연, 고창국화축제가 고창읍 석정리에서 열린다. 행사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1개월간 열리는 이 축제는 '제18회 국무총리배 전국 국화경진대회' 뿐만 아니라 국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전통유식과 체험행사도 함께 준비되어 있다.

최고기 이력추적제 — 최고기이력추적제 평가단 교육 열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고기이력추적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도의 이력관리 상황 평가 등을 통해 문제점 발굴·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우수 지자체는 선발·포상할 계획에 있다. 이에 지자체 이력관리 평가를 위한 평가단(등급판정소·농협 각 지역본부 담당자) 교육이 지난 9월 29일 축산물등급판정소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한편, 지자체 이력관리현장조사는 10월~11월까지 두달간 진행될 예정이다.